2023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총 괄 의 견>

□ 일반행정분과 의견

- 연이은 금리인상과 전쟁 등 대외적인 환경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시급
- (일반·청소년·자치경찰분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후생복지 지원 및 도민안전을 위한 안전사업 발굴 필요

□ 복지여성분과 의견

-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사업의 내실화 필요, 저출산 관련 사업·아동·돌봄· 가병·의료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도움 필요
- (여성·가족) 피해여성 보호 및 여성창업 역량강화 지원, 게임 등을 통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력 향상 사업 발굴 필요
- (복지) 시대요구에 맞는 사회복지 발전사업 필요, 일시적인 행사를 넘어선 계층간 이해와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노인·장애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환경 개선 및 더 많은 장애인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 필요
- (보건·감염·식의약) 치매, 우울증환자 공공성 차원의 지원 필요감염병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지역 향토음식 소비 증진 필요

□ 문화체육분과

-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사업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도 민들이 필요한 사업 편성 발굴 필요
- (문화) 신규사업이 다방면으로 가능한 문화분야는 구체적인 사업 산출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시·군비 매칭사업을 통해 시·군으로도 미술전시 공간 확대 필요
- (체육·관광) 다양한 계층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온라 인 홍보 활성화 필요

□ 경제환경분과 의견

- 경제환경분야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 이므로,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경제와 환경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적인 투자가 필요
- (경제·방사광) 충북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있는 사업방향 설정 및 충북 미래 먹거리인 방사광가속기 선도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
- (환경) 미래 유산인 산림·환경분야에 대한 관심 필요, 산불감시 도민신고 인센티브 등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검토

□ 농정분과 의견

- 고령화 및 인력부족난을 겪는 현실을 감안, 신기술 도입 및 첨단기계 보급 등 노동력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이상기온 등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뿐 아니라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 전개
- (농업정책) 귀농귀촌인과 갈등예방 및 전문농업기술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 (유기농산) 쌀값 하락 및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여 식량자급률 높일 필요가 있음
- (농식품유통) 농산물 생산·유통, 산업화·홍보 마케팅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업지원 타당
- (축수산)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예산은 적절하나, 특정인에게 치우칠 수 있는 사업은 지양 필요
- (동물방역) 전염병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한 백신지원 등 방역분야에 적절한 예산 편성

□ 안전건설분과 의견

- 재난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매년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세밀하고 촘촘한 투자 필요
- (재난안전) 자연재해의 빈도와 손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예측과 대비를 위한 연구 필요

- (균형건설)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는 생활안전의 최우선순위, 향후 전기버스 확장에 따른 전기버스충전시설 구축 우선지원 필요
- (소방) 소방장비의 첨단화와 과학화 및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선제적으로 확보되도록 소방인프라구축에 신경써주길 바람.

□ 도민제안사업 심의결과

사 업 명 소관부서		검토의견	
사 법 정	소관부서	추진	미추진
제천시 여성리더 아카이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0	-
노인 일자리기관 시설 환경정비	노인장애인과	0	-
충북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	노인장애인과	0	-
주민참여예산도민제안인센티브 제공	예산담당관	0	
산지유통 농산물 광역마케팅 기반 구축	농식품유통과	0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농식품유통과	0	
자동톤백저울 지원사업	농식품유통과	0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비 지원	동물위생시험소	0	
반딧불 곤충축제	농업기술원	0	
북벽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도로관리사업소(충죾)	0	

이에 별첨과 같이 각 분과별 의견을 취합, 2023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2. 11.

충북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최원영

<일반행정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2023년은 연이은 금리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보다 필요한 상황임.

일반행정분과 소속 부서는 타 분과 소속 부서와 달리 사업시행부서가 아닌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로, 타부서 사업지원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또한, 도민 전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 대책이 필요함. 일반 도민이 제안한 사업이 미미한 실정인데 제도적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며, 모든 사업 집행과 결과에 대해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요인을 분석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함.

청소년 관련 문제는 취업, 복지증진, 저출산 극복에 대한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며, 자치경찰분야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분야별 세부의견

1) 일반행정분야

- 민간단체 조직 활성화
- 현재 각 시군 민간사회 단체들이 많은 활동 하고 있지만, 중첩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음으로 단체별 연합회의 등 통해 효율적 운영 필요
- 동네 운동기구, 정자 활용방안 강구
- 기존 설치된 기구 및 정자들은 대부분 방치되어 있어 추가적인 편성은 불필요하며 기존 기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마을산책로 조성
- 현재 마을산책로는 있으나 주변 환경조성이 미흡함. 따라서 벤치 및 가로등 등 주변 시설물 설치 필요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민 참여 확대
- 타 시도에 비해 다소 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 또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운영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

2) 청소년 분야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
- 기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일손이 모자란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근무환경 차이가 없도록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필요
- 패키지 정책 개발
-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으로는 청년 문제의 해결이 어려움. 취업, 주택, 결혼 등 패키지로 묶어서 정책 개발 및 예산 지원 필요

3) 자치경찰분야

- 적극적인 도민안전 사업 발굴
-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당초예산 규모는 총 63억원 중 국비 53억, 도비 10억원으로, 대부분이 국가 지원 사업이며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은 총 3건(5.5억원) 뿐임
- 따라서,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비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과감한 예산 지원 필요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기보 시 어 면	소관부서 검		의견
구분 사업명		고친구시	추진	미추진
기존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	예산담당관	0	_
	인센티브 제공	에인담당판		

< 복지여성분과 >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2023년도에는 복지여성 분야 재원이 원안대로 배정되어 도민의 복지수준이 더 향상되고 더 삶의 질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성 사업은 사업내용 내실화, 신규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 정착화 필요하며, 공약 사업은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 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사안부터 신속히 지원하고, 중복·과다·불필요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며, 성과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형평과 실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관련 사업, 아동, 돌봄·간병 사업, 의료사업 등 시급성과 대상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분야별 세부의견

1) 여성가족 분야

가. 충북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장기적인 사업 지원 검토 필요

나.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자립훈련지원(신규)

- 각 시군 필요성 파악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

다. 여성창업 역량강화 해외 벤치마킹(신규)

- 여성 창업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라. 청소년 국제교류

- 매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여기회가 돌아가도록 운영되기를 바람

마. 성인지력 향상 게임 보급사업(신규)

- 비대면 방식의 성교육 보충 교재 개발을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성인지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추진 필요

바. 기타의견

-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환경의 개선과 장기근속을 위하여 근무시간 내 아이 돌봄 공간 지원정책 등 일터 개선 등 경력단절 여성의 국내교육과 지원도 함께 고려 필요

2) 복지정책 분야

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 사회복지분야 관계자 뿐 아니라 다수의 도민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행사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해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람

나. 충북민관사회복지인 연찬회

- 도내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진행 필요

다. 충청보훈대상 시상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

- 보훈 유족 및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혜택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연구사업 등도 병행되는 정책도 고려되었으면 함

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

-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되는 사업들로 추진되기를 바람

마. 학대피해아동 치유캠프,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

- 일시적인 행사에서 넘어서 학대 예방과 교육이 더욱 깊이 있게 다루어주길 바람

바. 충북형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서비스 사업(신규)

- 도내 전 지역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필요

사. 시군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신규)

- 상근 조리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아.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신규)

- 출산 장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 필요하며, 향후 확대 추진 필요

3) 노인장애인 분야

가. 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신규)

- 노인 복지 증진,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필요

나.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 장애인 당사자, 가족, 시설, 기관, 단체의 효과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시설 및 장비 지원 필요

다. 권역재활병원 설치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치가 조기에 정착되어 도민에게 형평성 있게 의료복지가 실천되길 바람

라. 기타의견

- 장애인 돌봄사업, 장애인, 노인학대 피해당사자를 위한 교육, 홍보 예산지원 필요하며, 더 많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필요

4) 보건정책 분야

가.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
- 나. 우울중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 우울증환자의 사회적, 공공성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
- 다.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
- 라.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신규)
- 농촌지역의 의료 소외현상을 보완 또는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
- 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도내 전지역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5) 감염병관리 분야

코로나19 뿐만이 아닌 폭넓은 감염병에 대한 지원사업 필요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6) 식의약안전 분야

가. 향토음식거리 지원

-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소비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구분 사업명	11 04 04	소관부서	검토의견	
	\r \(\frac{1}{2} \)	(부서검토의견)	추진	미추진
기존	노인 일자리기관 시설 환경정비	노인장애인과 (추진)	0	
추가발굴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노인장애인과 (추진)	0	
추가발굴 제천시 여성리더 아카이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추진)	0	

<문화체육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요구
- 모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특히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
 사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편성 및 발굴 할 수
 있도록 요구
-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사업이 사업을 마친 이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

2. 분야별 세부의견

1) 문화분야

- 문화분야의 경우 신규사업이 다방면으로 가능하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가. 충북 문화다양성 사업

- · 문화다양성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막연하고 포괄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시 구체적인 사업 산출을 통해 진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성안길 미술전시 공간 조성
 - · 청주 구도심인 성안길에 미술전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청주시민만의 수혜대상 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여 성안길 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에서도 미술전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필요

2) 체육분야

- 체육분야의 경우 특정계층이나 특정단체에 사업이 쏠리는 경우가 많으며 보다 많은 계층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가. 도민체전 개최 지원

- ·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비 산출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만 사업진 행 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 또한 같은 지출내역이 사업별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여, 기준이 모호함으로 정확한 기준을 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3) 관광분야

- 관광분야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집행되길 희망

가. 충북 관광 SNS 채널 운영

·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전에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며 SNS 등을 활용하여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충북 관광의 매력을 알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

4) 건축분야

- 건축분야의 경우 특이사항은 없으나 사업별 의견이 존재

가.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마을 내 벽화 등을 그리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벽화 작업 시 마을의 유래와 전설 등 마을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5) 도민제안사업 심의 결과

- 도민제안사업의 경우 위 분과 6건으로 사전 소관부서 심의 결과 2건은 불가, 4건은 장기검토로 의견을 제출하였음
- 분과위원 의견은 6개 사업 중 4건의 경우 미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2건의 경우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 최종적으로 충청북도문화유산테마길조성, 진천군평사낙안산책로설치의 경우 소관 부서에서 장기검토사업 의견이 나왔고 이에,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을 진행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경제환경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경제환경분과는 충청북도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임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의 경제와 환경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기존 사업들 중에서 효과가 미비한 사업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람

2. 분야별 세부의견

1) 경제통상 분야

- 현금성 직접지급 사업보다는 지원한 돈이 전체적으로 흘러서 충북도 경제 기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
- 타지의 대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확대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라이브커머스방송 지원의 취지는 좋으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인식 변화가 선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람

2) 방사광가속기추진 분야

- 지역 인재가 취업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충북의 미래먹거리인 방사광가속기 선도 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 어렵게 확정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촉구함
-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미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함

3) 환경산림 분야

- 미래 유산인 산림·환경예산은 촘촘하게 잘 편성해 주기 바람
- 산불감시원 사업의 일부 예산을 산불 도민신고 인센티브 지원으로 변경한다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추진 분야

- 중부권의 이점을 잘 살려 청주 에어로폴리스, 오송 바이오밸리가 외국기업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도시가 된다면 우리 충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해당없음-

<농정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농촌의 고령화와 강도 높은 농작업으로 인구감소 및 인력부족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의 관광 자원화, 농산물 육성 지원사업 등은 농업·농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임
- 다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농업에도 신기술 도입 및 첨단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해소, 청년농 육성을 통한 농업 승계농 정착의 기반을 갖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예산 확대가 필요
- 또한, 귀농귀촌인과 기존 농업인과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농업전문가로부터 농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전문농업인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국제적 이해관계 및 이상기온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특성상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하고,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반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예산을 확보해야 함

2. 분야별 세부의견

1) 농업정책분야

- 농업정책분야는 청년농부 육성,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농촌에 필요한 사업을 고루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가. 농촌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추후 우리농업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들이 3년 간 정부지원을 받은 후 자신있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의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부모의 농업기반을 승계하는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드론, 지게차, 자격증 등) 및 자녀 양육분야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길 바람
- 나.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융화교육 지원
- 귀농귀촌인에게 단순 교류와 교육뿐만 아니라 사전 체험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젊은 층의 유입을 전략적으로 유도
- 농촌유입민이 기존 정책들을 쉽게 찾아보고 내용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분야별로 정리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다.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 농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의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시각이 새로운 소득원의 기회로 인식되면서 농촌융복합산업이 자리잡아 갈 것으로 예상됨

2) 유기농산분야

- 유기농산분야는 쌀, 콩, 밀 등 곡물 공급수요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가격안정 및판로확보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음
- 가. 유기농쌀 공익적 가치 향상 비용지원
 - 유기농 쌀의 가격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친환경농업 확대기반을 마련함
- 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 쌀값 하락 및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여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타작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함
- 다. 콩 전용 농기계 지원
 -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콩 파종·수확기계 구입 부담 등을 해결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등 콩 자급기반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 라. 기타의견
 - 우리 충북이 유기농특화도를 선포한 이후 아직까지 충북의 유기농산물을 상징하는 브랜드 명칭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우리 충북의 유기농산물의 브랜드 명칭을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이벤트를 추진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도의 유기 농업 추진 농가의 자부심 함양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3) 농식품유통분야

- 농산물 생산·유통에서 식품산업화 및 홍보마케팅까지 고르게 잘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가. 지역농산물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 공공급식에 대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연중 공급 가능한 기획생산체계 마련
- 나. 노후 RPC(DSC) 시설장비 지원
- 노후화된 RPC 개선으로 농가 수매량 확대를 통해 쌀 수급안정을 유지함으로써 농가의 부담 경감 기대

4) 축산분야

- 소값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걱정이 커진 상황에서 우수한 한우 개량 및 브랜드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가. 한우경쟁력 강화(개량)사업
- 최근 소값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어 축산농가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으로 축산농가에서 경쟁력을 갖춰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나.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공공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만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의료진료 횟수를 높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

- 다. 깨끗한 어장가꾸기 지원
- 친환경 어업을 육성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 환경 개선을 위한 어업단체 지원은 특정인에게 예산이 치우칠 수 있어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라. 기타의견

• 한우의 사육두수가 수요를 초과하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사료 값 인상과 사육두수의 지속적 상승 여지가 있어 추후 한우값 파동에 대비하여 한우농가의 조직적 육성을 통해 직판장 형태의 한우 판매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5) 동물방역분야

- 동물방역분야는 전염병 가축질병 발생에 대비한 백신 지원 등 각종 방역분야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 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 백신접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포획 및 백신접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항체양성률을 향상시켜 구제역 예방에 효과적임.
- 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
-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한 산란계농장의 백신지원으로 면역력 강화 및 질병발생 예방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계란 공급 안정화 및 가금산업 경쟁력 증대에 기여함

6) 농업기술분야

- 스마트팜 기반 구축 등 첨단농업기술 연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가. 과채류 스마트팜 기반 구축
 - 스마트 온실 생육환경을 위한 정밀관리시설 구축을 통해 하우스 환경(기온, 관수, 측창)을 원격제어하는 복합환경제어 온실을 갖추어 새로운 농업기법 개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7 8	т о ц	ᆺᅰᆸ႘	심의의견	
구분 사업명		소관부서	추진	미추진
추가발굴	아리향 브랜드 육성(광역마케팅 기반 구축)	농식품유통과	0	
추가발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농식품유통과	0	
추가발굴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자동톤백저울 지원사업	농식품유통과	0	
추가발굴	가축방역 홍보물 제작비 지원	동물위생시험소	0	
추가발굴	반딧불 곤충축제	농업기술원	0	

<안전건설분과>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 우리 안전건설 분과의 2023년도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안전과 건설 및 소방관련 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성과 필요적 적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재난안전관련 사업과 소방의 인프라 구축은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교통복지와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오지의 공영버스 구입지원이나 특별교통수단의 지원대책은 주민 밀착형 생활 복지 차원에서 긴요한 사업이다.
- 재난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매년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세밀화고 촘촘한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역 주민자치 차원에서의 예산과 사업 범위가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 아울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나 효과성의 재검토 등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의 관심과 관리가 요구된다.

2. 분야별 세부의견

1) 재난안전분야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한 사업이다. 갈수록 자연재해의 빈도와 손해가 막심해지는 상황에서 예측과 대비를 위한 연구는 필요하다.
- 재난 안전 체험 마당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투자와 교육으로 도민 안전의 생활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는 바램. 재난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곧 예방인 것이다.
- 국가안전대진단은 모든 시설물과 자연환경에 대한 진단이나 확인은 대책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우선 필요사업이다.
- 하천의 관리 보전을 위한 정비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하천 관리의 철저로 생태 환경과 지역환경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하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 하천은 각 지자체별 연계 사업이므로 상호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3) 균형건설분야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외견상 추상적이며 청주, 진천, 충주, 음성이 제외된 사업으로 단순 지역 간 배분적 균형발전의 취지로만 인식될 수 있음.
- 행복마을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에 우선하여 추진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의 공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지원 예산을 우선 투입함이 바람직.
-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됨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타 사업이 지연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성이 요구됨.
- 전기버스충전시설 구축은 향후 전기버스의 확장에 따른 군 단위 지자체에세는 설치가 시급. 우선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는 생활안전의 최우선순위가 아닌가 싶다. 2차, 3차 피해나 손해가 확대되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4) 소방분야

- 소방장비의 첨단화와 과학화 및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선제적으로 확보되도록 소방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이 우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열악한 소방서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건립 등은 청사의 정밀진단과 효용성을 점검 후 순차적으로 집행 소방서 청사의 현대화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 119구급대원들의 안전과 감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안전장비 등의 구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3. 도민제안사업 시행여부 검토

7 8	사 업 명	소관부서	심의의견	
下正			추진	미추진
기존	북벽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도민제안사업)

1. 도민제안사업 개요

○ 공모규모 : 60억원 ※분과별 실링 : 10억원

○ 접수기간 : 상시 ※'23년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6월까지

○ 참여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FAX 등

* 홈페이지: 정보공개>도살림살이>주민참여예산>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방

O 제안대상 : 총 사업비 50억 이하의 사업

-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비 자체투자 사업(생활SOC)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개선사항 등

* 제안제외 : ① 국가사무 ② 기 시행사업의 증액 ③ 특정단체 지원 ④ 공공성 결여

O 추진절차



2. 도민제안사업 제안현황

제안건수	사업부서 검토결과			비고
세인신구	추진가능	장기검토	추진불가	미ᅶ
41	10	12	19	

3. 도민제안사업 심의결과

O 사업부서 검토결과 '추진가능사업' 10건 : 추진